

# 작년 적발액 1조 이상 등 매년 피해 눈덩이...“고액화 양상”

##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상)실태 분석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액도 최근 해를 거듭하며 최고치를 찍고 있다. 반면 적발 인원은 줄어 관련 범죄가 고액화 양상을 띠는 진단이 나온다.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했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는 업계는 물론이고 시장 경제를 해치며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 침해 범죄로 염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보는 최근 보험사기 실태와 관계 당국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 직업·연령대 1위 ‘회사원’·‘50대’

### 진단서 위·변조 과장 청구 최대

### 최근 금액 증가·인원 감소 추세

### 금감원·보험업계 “적극 신고를”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섬에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적발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감소하면서 개별 사기가 점점 더 고액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인원은 각각 1조1천571억원, 10만5천743명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2021년 1조1천502억원보다 0.6%(69억원) 증가했고 인원은 같은 해 10만8천997명에서 3%(3천245명) 감소했다.

이는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전년 3년간 적발 금액은 2021년 9천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천16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9만7천629명에서 10만2천679명, 10만9천52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4~2025년은 직전 연도보다 적발 금액은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직업별 비중은 기타를 제외한 회사원이 2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무직 일용직(12.1%) ▲주부(9.2%) ▲보험업 종사자(7.3%) ▲학생(4.7%) 등 순이었으며, 직업별 비중에 따른 순위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 비중은 60대 19.9%, 40대 19.1%, 30대 18.1%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10세 미만은 제외하면 20대가 12%로 최저였다.

연령별 적발 현황에서 20대의 비중은 최근 3년간 14.9%, 13.7%, 12%로 줄어드는 반면 60대는 17.3%, 19.1%, 19.9%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감소가 미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 적발 금액은 진단서 위 변조를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54.9%로 최고였다. 이 외에도 허위 고의사고가 각각 20.2%, 15.1%를 차지했다.

관련 사례론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자금 알선 상담 보험 처방팀을 꾸려 약 40억원의 실손 보험

금을 편취한 A 병원장이 꼽힌다.

A 병원장의 주도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환자를 모집했고, 보험팀은 이를 도수치료 등 실손 보험 적용 항목으로 조작해서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들은 실제 모발 이식과 필러 등 고가의 시술을 받았지만,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가담한 환자는 1천105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사기 의심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무료 진료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 전남 장애인도 이동권 소송...“우리를 태워달라”

## 원고 6명 금호고속 등 상대 차별구제 제기

## ‘쌍방 항소’ 광주 재판은 아직 2심 진행 중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리프트 도입 등을 촉구하며 법적 공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A씨 등 6명은 금호고속과 금호익스프레스, 광양시상, 나주터미널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과 청구 취지 및 원고들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현재 쌍방 항소로 광주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도 이제 버스에 탑승하겠다. 우리를 태워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배영준 상임활동가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휠체어 이용자의 시내버스 탑승을 위한 리프트 설치 등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

“재판부는 오늘 제기된 이 소송을 진행해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버스회사에게 면죄부를 주

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 텔레그램서 필로폰 구매·투약 20대 검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북구 신안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인 A씨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남 A씨를 검거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

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횟수와 시기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입 경로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윤찬용 기자

# 경찰 조사 앞두고 숨진 20대女 소지품서 ‘독극물’ 검출

## 국과수 1차 감정서 ‘청산염’ 발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A(20대·여)씨의 텀블러에서 청산염 성분이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를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 다만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나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에 동구 계림

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체포됐다.

동부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씨는 본인의 가방에서 약병지에 담긴 상태의 조제된 약을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답답 사망했다.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청산염을 직접 복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사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 화물연대 전남지부 간부 사망 파장 확산

## 공공운수노조, 전조직적 투쟁 방침

화물연대 전남지부 간부가 경남 진주 소재 한 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전남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네이너지부장이 사망함에 따라 전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부장이 사망한 경남 지역에서 이날 공권력 규탄 집회가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오후 5시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열렸다.

화물연대도 같은 날 오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역시 오후 2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사고에 대해 “자본과 공권력이 만든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CU 자본의 공식 사과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대체수송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 오전 10시32분께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는 대체 물류 차량 출차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차량에 치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앞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윤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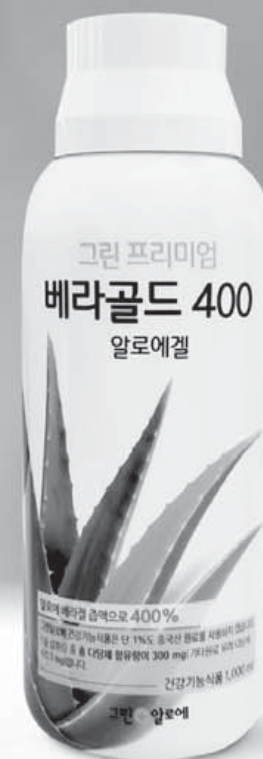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